

투데이 칼럼

단순 말 걸기의 효과



김 양 옥

한국스피치면접컨설팅 대표

우 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괜히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람이 몇 번 만나면서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호감이 생기고 신뢰감까지 느껴진다.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단순 접촉의 원리'라고 부른다.

어떤 대도로 상대방을 대하는가, 어떤 말을 나누는가, 어떤 일을 함께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이 단순히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친근감이나 호감이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의외로 단순한 측면이 거는다.

말을 거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몇 번을 거듭하여 말을 걸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친근감이나 호감을 가지게 된다. 말의 내용이나 대화 유무는 관계가 없다. 말을 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을 거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마주치는 것과 비교할 때, '접촉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 말을 거는 행위에는 '나는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가 끌려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

된다.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다. 우선 말부터 걸고 보자. 물론, 대화할 때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 '비단 밤을 까?', 혹은 '지루하게 할까?' 등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벼운 인사에서 상대의 칭찬, 상대의 관심, 즉 스몰토크의 "어떤 말이라도 상관 없다. 우선 말부터 걸어라."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어떤 말을 걸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감정 때문이다. 따라서 그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있다.

말을 전다는 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돌을 던지면 수면에 어떤 파문이 일까? 일단 알고 싶은 것은 그 파문. 즉 '상대방의 감정'이다. 따라서 굳이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고, 대화 내용에도 크게 신경을 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오늘 넷타이 멋진데."라고 말을 걸었다고 하자. 그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표정은 답변은, 그리고 반응에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 있는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다. 대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현재의 기분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확은 크다. 말을 걸지 않았다면 그것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상관이 없으니 일단 말을 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복을 통해 당신에 대한 친근감이나 호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도 여전히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스피치기법(말을 표현법 개발)에 노력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보자.

가장과 사회에서 효과적인 말 한 마디의 위력을 대단하다. 말 한마디로 평생 직장을 얻은 사례, 말 한마디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례가 많지 않은가?

무표정, 무관심보다 2IC에는 감정의 말, 호감의 말, 긍정의 말로 기쁠

을 주어서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들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도끼질 하는 별목 세계선수권 참가자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미 위스콘신주 헤이워드에서 제61회 별목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다. 이 대회에는 남녀 별목꾼들이 참가해 톱질, 도끼질, 나무티기, 통나무 굴리기 등을 겨뤘다.

'바르샤바 봉기 77주년' 거리에 모인 시민들



1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국기를 든 시민들이 바르샤바 봉기 77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1944년 8월 1일 나치 독일의 점령으로부터 폴란드를 해방하려던 저항군이 봉기했으나 약 두 달간에 걸친 독일군의 진압으로 폴란드 저항군 1만6000여 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0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남북한 우정의 전시회

최근 국내에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남북한 우정의 전시회가 열려 주목됐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는 경기도 수원 화성읍 시작으로 전국을 돌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남과 북의 약속, 신뢰, 우정이 주제다. 16개 팀, 28명의 작가들은 선을 해물고 선을 넘는 상상을 하며 미래의 한반도 모습을 그렸다.

특히 평양미술대 교수 3명의 작품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모두 2018년과 2019년 중국을 거쳐 들어온 작품들이다. 한편 눈이 덮여있는 백두산은 천지도 있다. 백두산은 북한 화가들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인 것 같다.

남측 작가들은 현리산의 벽돌담을 선보였다. 다양한 기법으로 민족의 성산을 표현했다. 작가들은 남북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어느 유족급여 지급 논란

어느 유족급여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혼한 생모에게도 유족급여가 지급되자 아버지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생모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송소한테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월 32살의 어느 여성 소방관이 순직했다.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청구했고 정부는 일시금 1억 5천여만 원과 매달 182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문제였다. 전처이자 숨진 소방관의 어머니가 본인 뒤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딸의 퇴직금 등 약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생모는 시판 때까지 매달 10만 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유족은 "상례식조차 오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32년간 연락을 끊고 두 딸의 양육 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했는데 이제 와서 유족 급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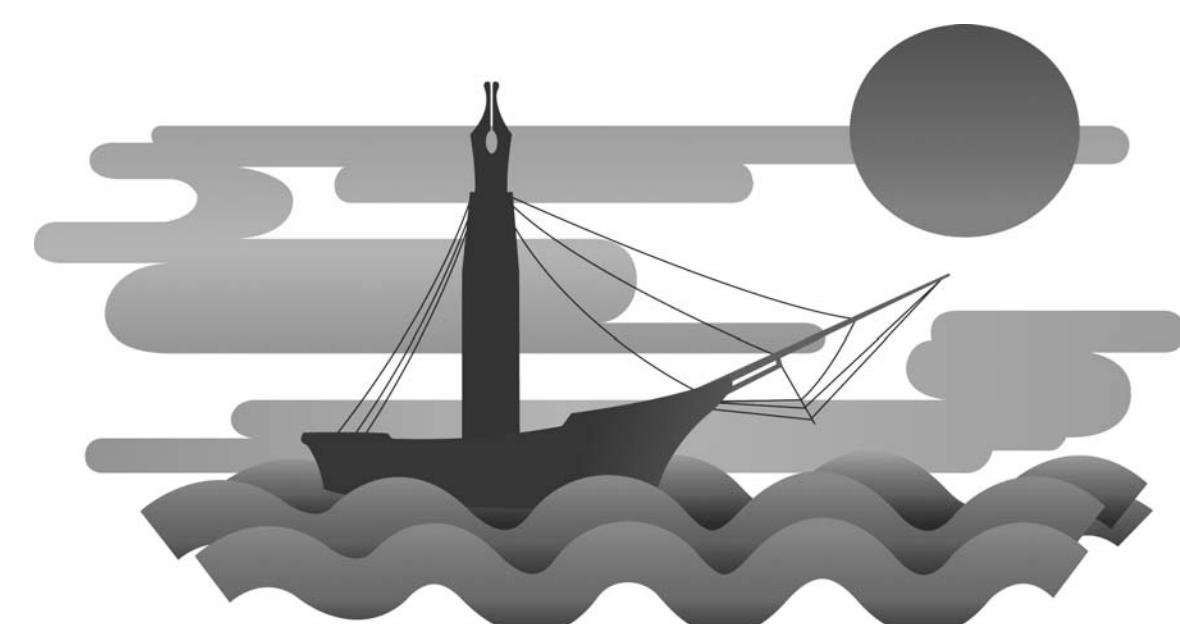
유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달 23일 신청서를 냈다. 양육비 책임과 별도로 생모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해당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모에게는 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제한 신청을 하면 전문 기관이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동거 기간과 경제적 지원 여부, 범죄행위, 학대 등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양육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한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